

교육대책위 정부 직접교섭 시도

## 등록금 인상·BK21문제제기



시원/김민기 기자

지난 9일 서울지역대학생 2000여명이 모여 교육부에 '교육재정 6% 확보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지난 9일 오후 4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교육대책위)의 교육부 항의 방문과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의 개강부쟁선포식이 정 부중앙청사 앞에서 있었다.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학생들은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등록금 인상 반대 △주한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6개월의 질의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 약 4.6%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의 중이다.

BK21 사업은 대학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학술연구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각 대학들이 이월적립금을 대학에 투자하여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학생들을 구제하도록 할 생각을 없는가.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및 기타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자율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기금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사용 이월적립금은 차년도 운영경비에 포함·집행되며 필요한 경우 이월되기도 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등록금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책정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하겠다.

2000년도 등록금 인상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 외의 TV 공개토론과 직접교섭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권이 법령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TV 공개 토론 등은 대학자율화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부

## 창업보육센터 4월경 개관

### 본교 교수 학생 벤처열기 확산에 기여 클 듯

이젠 본교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가에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면서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도 창업보육센터가 동국관 2층에 신설되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벤처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전자 상거래 연구 센터를 통한 창업지원단(단장=이종욱·정보관리)을 구성하였다.

점차 뜨거워지는 관심과 열기

에도 불구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막연하게만 느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창업지원단은 오는 4월경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창업강좌나 창업설명회를 비롯해서 벤처캠페인, 창업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까지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멀티미디어·문화예술 및 인터넷 관련 분야를 모집하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루비랜드' '인사동' '이미지나라' 등 총 14개의 업체들은 얼마 전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본교 교수와 졸업생 및 재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업체들에 대한 선정이 2차 공모를 통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타대학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에서는 벤처 창업지원 센터 격인 '산학협동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각종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본부가 본격적

인 벤처기업 창업기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숙명여대, 순천향대와 같은 대학들은 작년에 이미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하고 벤처기업들을 모집하여 입주시킴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창업지원 단장은 "학생들에게 벤처창업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선 기자

eunsun@cakra.dongguk.ac.kr

### 새터사고 무엇을 남겼나

##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의식' 절실

### 본교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고 보상 용이 기대

지난달 17일 발생한 새터사고와 같은 참사와 관련해서 학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측과 학생회측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이 보험으로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사망자에게 지급했다.

이와 같이 학교는 보험가입으로 △재정적 안정 △재학생들의 복지증진 △보상업무의 간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영 법과대 부교수는 "학교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T.나 야유회 등 각 학과 동아리별로 진행되는 행사는

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대에서 발생한 원자핵 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건에서 서울대는 이 보상보험을 통해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대는 이 보험으로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사망자에게 지급했다.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없어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재 끝났거나 진행중인 단과대학별 새터처럼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측에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는 묻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담당교수가 감독 및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책임의 한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담당교수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각별한 주의를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사고확률이 높은 행사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영 교수는 "교수가 제의무를 다했지만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학생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보상 처리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안전의식이다. 학교측과 학생회측은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안전교육용 자료와 구급약품 등이 행사장에 준비되어야 하며 여행의 경우 이를 출발전에 점검해야 한다.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새터 사고와 관련 학생들의 아픔이 큰 만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cakra.dongguk.ac.kr

##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전달

### 이정화 스님 2천만원 도봉거사 1백만원

대의 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 발전 기금팀은 지난 7일 이정화 스님(77, 수원 정혜사)과 불교신자인 도봉거사(수유리 화계사 신도)로 부터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을 전달받았다.

이정화 스님은 올해로 77번째 생일을 맞아 주위에서 열어주는 잔치를 마다하고 잔치비용 1900만원과 개인재산 1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을 병원건립에 써달

라며 직접 전달했다.

또한 독실한 불자인 도봉거사는 부인이 병환중에 있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좋은 병원을 건립해 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발전 기금팀의 황우열 팀장은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깊은 불심으로 선의를 보여주셨다. 이런 좋은 사례를 보고 사대부중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정각원, 개강법회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개강법회를 개최한다.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오복원 큰스님 설법으로 이루어지며 교수, 직원,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각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원장 스님의 지도로 참선법회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참선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사사령

### ◆ 임 정기자

△김은선(이과대 자연과학부2)

△박지영(이과대 자연과학부2)

△김윤미(사과대 복한2)

△표은영(사과대 복한2)

△김현중(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2)

-이상 3월 13일자

## 지면안내

비주류 잡지를 읽는다 7면



다양한 내용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주류에 대항하는 젊은 비주류 잡지들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의 특성과 전망을 살펴본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 4면

탈수습기 5면

제2회 네티즌 연극제 6면



## 찰나와 겹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과)

불교에서는 일곱 가지 '시간의 단위'를 살한다. 이 중 '찰나'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로 '겹'은 가장 긴 단위이다. 일념(一念)이라고도 번역되는 찰나는 흔히 험센 장사가 손가락 한번 휘기는 데 걸리는 시간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짧은 시간이다. 겹은 겹파(劫波)의 준말로 인도에서는 보통 범천(梵天)의 하루, 인간 세계로 치면 4억 3천 2백만 년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의 연월일로써는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긴 시간을 뜻한다. 비유하자면, 돌레가 40리 되는 성(城) 안에 거주자를 가득 채워놓고 천인(天人)이 3년에 한 알씩 집어 가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겹이다. 또는 돌레가 40리 되는 돌을 천인이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천의(天衣)를 입고 3년에 한 번씩 내려와 옷깃으로 돌을 스쳐 그 돌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1겹이다.

하지만 무한과 영원을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찰나와 겹과 같은 물리적·객체적 시간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수학적으로도 무시무종(無始無終)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찰나와 겹은 모두 0이 된다. 그러기에 신라의 자장 율사는 "차라리 계를 지키며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계를 어기고 백년은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중국의 순치 황제는 출가를 결행하고 난후 "인간의 백 년 세상은 출가를 결행하고 난후 "인간의 백 년 세상은 3만 6천 일이 절간의 한 나절 한가로움에도 미치지 못하리라"고 읊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구도자와 선지식들이 물리적·객체적 시간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심리적·주체적 시간에 눈을 뢴던 것이니,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 하루라고 할 것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문제다. 바로 이 순간의 삶을 그을음 하나 없이 연기 하나 없이 완전연소시켜, 생사(生死)의 시간을 열반(涅槃)의 시간으로 바꿔가야 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시간에 기만당하며 시간의 노예로 남게 될 것이다.

## 발전기금 ARS 7000-119

# 수습기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마감 : 3월 23일(목) 오후 5시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선발방법 : 간단한 시험과 면접
- 선발일시 및 장소 : 3월 23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광고

### 섬세한 남자 똑똑한 여자

멋진 남자.  
그래서 눈부신 남자.  
문화 전반을 꿰뚫는 해박한 지식.  
생활정보에 대한 눈부신 감각.  
도전과 패기의 현장에서  
한발 앞서 리드해 가는 남자.



튀는 여자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  
언제 어디서나 골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여자.  
사회와 대학 전반에  
호기심과 열정이 폭발하는 여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동대신문사를 이끌어갈  
새내기를 찾습니다

### 인·적성검사 무료실시 학과·직업 선택에 도움될 듯

학생상담실(실장=정진환·교육학)은 학과 및 직업선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직업에 대한 능력유형, 인성유형, 선호경향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학생들의 학과선택이나 전공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에 학생상담실에서 실시하며, 접수는 3월 20일까지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학생상담실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 가능하며, 진로지도나 '남녀차별금지 및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상담도 실시한다. 교양강좌개최와 해외유학안내 및 URP추천서 발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추천서 발급 등도 학생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교양과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4회 동아리 박람회 개최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려

동아리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승준·철3)는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제 4회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람냄새 나는 신나는 세상, Power up with 동아리' 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앙 사업과 분과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중앙사업으로는 부상자 방문, 모금운동, 동아리 소개지 배포 등이 있으며 분과별 사업으로는 △학술분과 - 불상앞에서 공동새내기 의식조사 △예장분과 - 학생회관 앞에서 새내기 맞이 기획 전시 △봉사분과 - 학생 회관 연화원에서 15일부터 오는 4월까지 강연회, 세미나 등의 신입생 교양학과 △공연분과 - 새내기 맞이 환영 및 새터사고 사망 학우 추모 연합공연 등이 있다.

### 대학원 총학생회 15일 선거 실시 이영재·복도훈조 단일 입후보

대학원(원장=민태진·화학)은 제 16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7일 오후 등록마감된 후보자는 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복도훈(국문학 석사과정 2학기)조가 단일 입후보했다.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90주년 기념학술관, 동국관, 교수회관, 과학관, 원흥관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같은날 18시 대학원 총학생회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수강신청 정정, 전반적인 개선작업 필요

## 회전무대

### 모집단위 광역화, 표준교과과정 개편으로 외국어 교양과목 인원초과

수강신청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에 실시된 수강신청 정정 기간동안 학내 컴퓨터 실습실은 물론 각 단과대 교학과가 북새통을 이뤘다. 매 학기 정정 기간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그 정도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모집단위 광역화'와 이에 따른 '표준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과 외국어 교양과목의 과잉 인원초과를 들 수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와 표준교과과정 개편으로 기존에 학부·학과별로

정해져 있던 교양필수 과목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자, 한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영어 회화의 경우 다른 과목보다 적은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불만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사범대 지리교육과의 한 신입생은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정원의 학생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시간표를 다시 짜야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국어 강좌에 대한 불만은 교양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과학대의 한 학생은 "낮 시간대에는 외국어 과목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할 수 없이 야간수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어 교양과목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사과대 행정학과와 한 학생은 "90명 정원 과목의 수강인원이 190명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처음부터 강좌 수를 늘려서 개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개강한지 1주일도 넘도록 제대로 된 수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또한 이와 함께 강의실이 턱없이 작아 수업의 효율성

이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수강신청 정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상태의 한 학생은 "정원을 초과하는 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님의 사인을 받아 교학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교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도 사인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도장을 찍는 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다. 수강신청 정정방법에 대한 전체적 개선작업이 절실하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금연위에 모락모락?  
O...건물 내 곳곳마다 금연 표지가 붙었지만 학생들의 건물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데. 건물 내 흡연이 금지되어있지만 학생들은 이를 무시한 채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운다고. 학교측은 모르는 척 팔짱만 끼고 있고 흡연자들은 금연표지에도 아랑곳 않고 담배를 피운다. 이에 회전무대자 왈, "금연표지를 물로 보지마!"

교수님은 스타?  
O...수업이 끝난 직후 한 강의실에서 수강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수님께 추가싸인을 해달라며 20~30명씩 몰려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데. 알아본즉 학생들이 몰릴 강좌가 눈에 뻐히 보이는데도 학교측이 교수들의 강의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원격 수강신청이 포화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이와 더불어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너희들 진짜 수강신청이 뭔줄 알아? 못나? 못가?"

협박이십니까?  
O...수강정정 후 강의가 한창인 요즘 한 강의실에서 강단위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부탁하곤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알아보니 자기의 담당수업으로 개설된 강좌에 9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자 수강 취소기간에 반정도만 취소하라는 말과 함께 자기는 학점이 짜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고. 이는 교수는 적고 학생은 많은데 자기 불편한 생각만 한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강단에서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면 나도 생각해 보지!"

인터넷 중독증  
O...열마진 PC방 주인이 식사도 거르면서 밤새도록 게임에 열중하다가 과로사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다수의 N세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루라도 컴퓨터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이상증세를 보이는 현상을 둘러싸고 의학계에서는 신종 병명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언이 있어.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 한마디 "인간이 컴퓨터를 개발했지만 컴퓨터에 의해 지배당하는 무서운 세상, 아~ 엘리트층의 미래의 쇼크"



평화심포지움  
지난 10일 상록원에서 한국생활협동중앙회 주최로 반핵·반전·평화 심포지움이 열렸다. 김현중 기자 roket123@cakra.dongguk.ac.kr

### 도서관 '열람실 관리생' 운영 "도난사고·장시간 외출 이제 그만"

앞으로는 도서관에서 도난사고나 자리잡기의 어려움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지난 6일부터 '열람실관리 근로장학생(이하 열람실관리생)'을 열람실에 배치했다. 열람실관리생은 △도난사고 방지 △자리잡아주기 및 장시간 자리비우는 행위에 대한 예방 △복도에서의 잡담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해 주의를 주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열람실에서 빈자리를 옮겨 다니며 공부하는 번거로움 등 다소 불편했던 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실관리생은 또한 △각종 비품의 파·오손 확인 및 교체 △형광등 상태 확인 △실내 불법 부착물 제거 및 부착 방지 등의 일도 하게된다. 이는 열람실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실 관리를 열람실내부에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운영상의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과 도난이나 분실사고 등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열람실관리생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열람실관리생이 하는 일이나 역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같은 학생인데 무슨 관리냐'는 듯 오히려 골치 많은 시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열람실관리생의 운영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도서관측의 홍보부족으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른다면, 열람실분위기 개선이나 이용률의 개선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은영 기자 bluerain@cakra.dongguk.ac.kr

## 졸준위 단과대 선거 실시

### 대의원장 선출 16·17일, 학생회장 선출 22·23일

지난 해 후보 미등록으로 2000학년도 선거를 치르지 못한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을 비롯한 단과대의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13일 후보자를 공고 한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불교대, 이과대, 공과대, 사범대의 단과대 대의원장 선출총회

및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졸준위와 불교대, 법과대, 예술대, 공과대 학생회 투표가 실시된다. 등록된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졸준위는 정임후보자 박병남(무역4)이며 단과대학생회는 △불교대 정=정수하(불교4) 부=김현석(선4) △이과대 정=임승현(법3) △공과대 정=안성수(전기3) 부=안갑현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2000학년도 1학기 DUBS 방송 편성표					
오디오방송	월	화	수	목	금
아침 8:30	제작: 김세형 기술: 최정재 진행: 김동미	제작: 4기 제작부 기술: 최정재 진행: 박형근	제작: 장혁진 기술: 황재원 진행: 이우진	제작: 김지운 기술: 최정재 진행: 김선명	제작: 4기 제작부 기술: 손병기 진행: 4기 제작부
낮 12:10 12:13	DUBS 캠페인 (제작: 제작부·보도부 기술: 손병기 진행: 주상원)				
12:18	제작: 김경화 기술: 최정재 진행: 이우진	제작: 양선경 기술: 최정재 진행: 박형근	제작: 양선경 기술: 황재원 진행: 김선명	제작: 김경화 기술: 손병기 진행: 김동미	클릭! Juke Box
12:25	커피스 인 글리쉬 (제작: 박규원 기술: 손병기 진행: 김유라)				
12:35	자유소리통 제작: 양선경 기술: 황재원 진행: 박형근	동악을 듣는다 제작: 진행: 기술: 양승주	백상초대석 제작: 진행: 기술: 손병기	이주의 토크 제작: 진행: 기술: 양선경	제작·진행: 김유라 기술: 손병기
12:40	민중의 노래				
오후 4:50 4:53	DUBS 캠페인				
5:00	클릭! 뉴스				
5:10	불교 이야기 (제작: 장혁진 기술: 황재원 진행: 박형근·이우진)				
5:20	항기가 있는 그곳 제작: 김지운 기술: 황재원 진행: 이우진	DUBS 퀴즈퀴즈 제작: 김지운 기술: 손병기 진행: 박규남 김동미	홀프기의 영화나라 제작: 김세형 기술: 최정재 진행: 김동미	The Live 제작: 장혁진 기술: 손병기 진행: 김선명 김동미	제작: 박규원 기술: 양승주 진행: 류서정
5:25	형근이의 이야기 음악 제작: 김세형 기술: 양승주 진행: 박형근				
12:40					
TV 방송	월	수	목	금	
방영시간 : 오후2시 (월,수,금)	DUBS 뉴스센터 (연출:김태민 진행: 류서정)				
방영장소 : 학생회관 1층 로비	DUBS 캠페인 (연출: 최기신 촬영: 윤형은 진행: 박형근·이우진)				
	Hero 연출: 이정경 촬영: 김완중 진행: 김선명, 김동미	퀴즈: 열린 캠페인 연출: 이인혜 촬영: 윤형은 진행: 김유라	뉴 오픈 카메라 연출: 김완중 진행: 이우진		

2000학년도 1학기 컴퓨터실습실							
건물명	실습실명	PC 수량	용도	개방시간	비고	전화번호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2층	컴퓨터실습실 KJ	KJ	수업전용	08:30~22:30		8882	
동국관 1동 4층	컴퓨터실습실 LF	LF	수업전용	08:30~22:30		8891	
동국관 M동 5층	컴퓨터실습실 GC+MG	BSC 10	자유실습	08:30~22:30	토,일요일 개방	8883	
과학관 1층	컴퓨터실습실 AH	AH	수업전용	08:30~22:30		8889	
원흥 1관 5층	컴퓨터실습실 EA	EA	수업전용	08:30~22:30		8886	
원흥2관 지하1층	컴퓨터실습실 FL	FL	수업전용	08:30~22:30		8892	
정보문화관 P동 2층	컴퓨터실습실 EK	ESC 5	자유실습	08:30~22:30	토,일요일 개방	8894	
정보문화관 P동 5층	미디어아트실	ESC 1	41	수업전용	08:30~22:30		
	동영상처리실	ESC 2	41	수업전용	08:30~22:30		
	컴퓨터실습실 EB	ESC 3	51	수업전용	08:30~22:30	8885	
	컴퓨터실습실 GI	ESC 4	28	자유실습	08:30~22:30	토,일요일 개방	
학림관 3층	컴퓨터실습실	컴퓨터실습실	36	자유실습	08:30~22:30	8888	
합계			625				

### 전임연구원 공모

- 자격 : 불교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취득자
- 인원 : 0명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이력서 1부  
③ 박사학위 증명서 1부 ④ 연구실적 목록  
⑤ 연구업적물 : 최근 3년(97년 1월 1일 이후) 논문, 저서  
⑥ 연구계획서(4000자 이내)
- 서류제출일시 : 2000년 3월 24일 5시까지
- 접수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연구원으로 선임된 자는 개별 통지함.

### 불교문화연구원

### 조기졸업신청

- 신청자격 :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2000년 1학기 포함), ② 취득학점이 급격히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③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이상(F성적 포함)이 될 수 있는 자로서,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기간 : 2000. 3. 15(수) ~ 3. 17(금)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야간강좌는 야간강좌 교학과)
- 제출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타사항 : 가.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도 신청가능. 나.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수 없음. 다. 신청당시의 평점평균이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함.

### 정보관리실

### 교무처

대만 독립과 동북아 정세 **논단**

# 미국 개입없는 동북아 안보협력 체계 구축돼야

다가오는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져, 마치 우리 남한이 97년 대선에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것과 같은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야당인 민진당후보 천수이벤이 당선 되었을 경우 민진당의 당론인 대만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무력개입을 불러 일으켜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응당 이러한 정세는 6·25전쟁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외세가 개입하였듯이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우리의 안전과 평화에도 커다란 소용돌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대만의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독립선언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마치 한국에서 제주도나 독립하여 주권국가가 되는 것과 유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고, 2차 대전 이후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의 영토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지도하의 중국공산당 주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파시스트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와서 별개의 주권국가를 세우게 된다. 물론 국민당의

자력으로 본토인 중국과 별개의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외세인 미국의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에 의해 독립과 생존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대만을 보호하던 미국이 사회주의 중국과 수교를 함에 따라 남한을 포함한 모든 지구촌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된다. 이로써 대만은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일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이해관계는 90년대 소련이 붕괴하여 소련권제라는 중국의 역할이 더이상 미국에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중국이 개혁 이후 연 평균 9%가까운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30년경에는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21세기 세계질서나 동북아질서에서 미국의 초강대국 패권주의에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대만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편입될 경우 중국의 국력은 더욱 막강해 진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90년대 이후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설정하고 있

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세계지배 야욕이라는 제국주의성이 대만의 독립을 은근히 부추겨 두 개의 중국으로 분열시켜 중국의 강대국화를 저지하려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의 일부 정치세력이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지배구도에는 미국의 하위동맹체인 일본이 전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른 한편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는 내적인 요인도 있다. 먼저 대만의 일인당 국민소속이 중국을 몇 배나 능가하고 있어, 비록 연방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속이 통일을 계기로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만주민이 많다. 또 대만의 인구 구성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토착인은 청나라 강희제 이후 주로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에서 넘어 온 사람들로, 장제스국민당 군대가 저지른 2·28학살사건의 원한 때문에 본토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 남아있다(대만 원주민은 고산족으로 소수에 불과함), 여기에서 대륙에서 건너 온 장제스휘하의 파시스트국민당이 이제까지 대만을 철권통치 해온 쓰라린 역사적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적 요인이 대만 독립의 추동력임은 틀림없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외세의 지원이 없다면 대만독립이 표면화



강 정 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대만의 독립 선언은 곧바로 중국의 무력개입을 부를 것이고, 이는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미연합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군은 거의 자동적으로 미군 밑에서 중국전쟁을 치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시 이는 남북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는 3차대전의 회오리에 휩싸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전망은 쉽게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제 동북아 문제는 외세라는 미국의 개입 없이 동북아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북아협력안보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거거청산이 이루어지고, 동북아의 민중과 시민세력이 연대의 틀을 굳건히 형성하고, 우리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중재 및 조정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 우리 마음속의 망국병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구태의연한 '씩갈론'을 운운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우리의 선거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냉담하다.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등장하는 '정치철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할뿐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정치권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정치현실을 바로잡고자 그동안 총선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는 각 정당을 상대로 낙선낙선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얼마 전, 한국방송협회 소속 방송사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보도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왜 그랬을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자칫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는 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시점에서 왜곡된 정치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의식도 변화해 한다는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기성언론에서는 각 대학생들의 낙선낙선운동에 참가해 예상 밖으로 소극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대학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도 '떨렁' 하리만큼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몇몇 학생들이 시민단체 자원봉사 등을 통해 낙선낙선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학가의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소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다수의 움직임 모습을 기대한다. 현 정치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이 불러올 엄청난 폐단이 우리 대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조기 복학생 전공결정권에 대하여

지난 9일, 경주캠 원효관 중정에서 조기 복학생 전공 결정문제를 두고, 학과 단위 집회가 열려 학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에 휴학한 인문대 학생이 조기 복학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학생은 학부로 입학해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전공결정이 확정되는 2학기를 휴학했었기 때문에 전공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올해 3학년 1학기 조기복학 신청결과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와는 무관하게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학생은 학사 담당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며 학교에 항의 방문하고 곧바로 학우들과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휴학신청서 작성 당시, 조기 복학을 신청할 경우 만일 전공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이같은 각서 작성은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단체 학생회에서는 자체 사례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와 같은 경우의 학생이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학사 내규를 살펴보면 제2장 3절 17조에 학부·계열별 입학생은 2학년 2학기 말 수강신청 이전에 소속학부(계열)내의 전공(학과)중 희망전공(학과)을 선택하며, 결정은 2학년 2학기말에 확정 공고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전공 및 학과는 원칙적으로 학생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희망 학생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할 경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사내규에 따르면 이번 경우의 학생은 전공 결정을 자의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한 학기 재휴학 후 복학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하겠다.

하루에도 수백 여건의 상담에 응해야 하는 학교측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분고 현장 8장 42조에 대학은 학생이 학과 또는 전공 선택 시 판단 기초가 되는 학과·전공 특성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학생에게 전공결정권 여부를 사전에 좀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렸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측은 전공결정이 한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학생의 입장에 수긍은 가지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집회의 강행을 통한 학사 담당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전향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문제해결의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 졸업자적인증제 도입 확산

## “영어공부 안하면 졸업 못해”

### 개인 경쟁력 '강화' 이면에 전공 등한시 우려

대학이 바뀌고 있다. 그냥 입학만 하면 졸업이 보장되던 때는 지났다. 전공의 각 대학들이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졸업자적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등을 강조해온 정부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어구사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배움의 터'라는 책임을 간과한 채 학생들에게만 떠넘기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졸업자적 인증제'란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비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외국어와 컴퓨터활용 능력 등에서 공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대학 언어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실용 영어검정시험인 텡스(TEPS)를 치러 성적이 500점 이상이어야 교양영어를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20일에 치러진 시험에서 응시자 4356명 가운데 20.5%(894명)이 수강자격기준을 미달했다. 이들은 아예 교양영어를 수강할 수 없으며, 수강을 위해선 다시 텡스를 치러 500점을 넘겨야만 한다. 교양영어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텡스는 사실상 졸업자격과 동일한 것이다. 학생들은 500점을 넘을 때까지 매번 2만 원씩을 내고 텡스를 다시 봐야 한다. 여기서 개인이 갖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 못할 일이다.

이 밖에도 고려대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만 강의하는 과목 2개 이상을 이수해야만 하고, 토론티나 토익 등의 시험을 치러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바꿨다. 또 서강대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도 졸업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과연 토익, 토플 등의 시험 점수가 높다고 영어구사 능력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 것에 대해 각 개인마다의 사용 목적과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 평가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희대는 학교에서 개발한 영어자격시험인 CRS의 첫 대상인 96년 입학생 중 25명이 자격이 미달해 이번 졸업식에서 학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또한 성균관대도 졸업예정자 22명이 토익 등 외국어 성적이 모자라 졸업을 하지 못했다. 특히 졸업 예정자였던 이모(25, 동양학부)씨는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토익이 졸업기준(600점)보다 낮아 학위를 받지 못해 진학의 꿈이 좌절되자 지난달 17일 학교를 상대로 학위수여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영어는 전공을 공부

하기 위한 기초과목인데 최근에는 '목적'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 자칫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고, 대학을 단지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정한 자격취득을 학생에게만 맡기지 말고 대학당국이 먼저 학문 분야별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하겠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동약로

한일 우호의 선결과제



“일본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생활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본교 생활협동조합과 일본 동경 MY CO-OP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원에서 ‘반전·반핵·평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양국간 개인적인 감정이 평화를 가로 막아선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적 문제로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의 분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초점이 상당 부분 맞춰졌다.

“제가 일본에 유학했을 당시 한 일본친구가 ‘왜 자신이 한국인들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은 분명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뒷 세대의 일이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젊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별 다를바 없을 것이다.

과거 35년의 식민 통치와 더불어 때마다 나오는 군위안부 문제, 한일어업협정, 독도 문제 등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양국은 얽혀있다.

작년에는 일본 장관이 자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망언을 해 반일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단순히 ‘우호친선’, ‘미래지향’ 등의 수사로 과거사 등의 핵심현안을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제 2002년에 양국은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문화는 3차개방에까지 이르렀다. 양국은 이제 가깝고도 먼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로 접근하려 한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한국의 무조건적인 반일감정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쉽게 진일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양국은 진정한 우호관계 수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김현중 기자  
roket123@cakra.dongguk.ac.kr



네트웍에 유권자 힘이 쏠린다

100만표의 힘... 무능·부패한 정치인 더이상 설자리 없어

자기 지역구의 출마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TV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신문을 읽어봐도 우리 정치인들의 인생관, 민족관, 역사관, 정치철학 등이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TK, PK, 충청 등 의원들의 출신 지역에 관한 것이 고작이다.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했는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 나라 선거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당에서 공천되고, 지역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년 유권자 100만 행동’이 그것이다.

‘청년 유권자 100만 행동’은 지난 12일 YMCA,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의 미래·제3의 힘’ 등의 청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2·30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운동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그 표를 조직화하여 하나의 거대한 유권자 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젊은 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벌이며, 바쁜 사회 생활로 한 곳에 모이기 힘든 직장인들의 참여가 용이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그 동

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선거를 네트웍 상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는 1표를 가진 무기력한 유권자가 100만 표의 조직된 힘으로 일치된 주요행동을 하고 선택권을 행사해, 낙선시킬 사람을 낙선시키고 당선시킬 사람은 당선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후 모니터링과 국민소환권 행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의 유권자 운동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미래·제3의 힘’의 박재국 사업기획팀장은 “지금까지는 유권자가 배제된 채 소수의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왔다”며 “권력중심의 정치를 유권자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한 사람이 세명만 ‘바뀌’”

- 100만표의 의미  
= ‘100만 표’는 지역 구당 평균 4천4백 표.

이 숫자는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표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당락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표이다.

- 어떤 방법으로 100만 표를 모을 것인가.  
= 인터넷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여 네트웍의 가입을 유도하고, 희망의 메일 이어보내기 운동을 다단계로 펼친다. 100명의 발기인이 5명씩 연결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8단계만에 200만이 된다.

가입자들은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결정된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의 투표기준에 따라 반드시 투표하며 △주당 30분의 정치참여(인터넷, 팩스, 전화)와 월 2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유권자 3명 이상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맑은 정치 협정이란 무엇인가.  
= 맑은정치협정이란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이 내 놓은 제도, 정책, 관행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각서에 넣고 선거과정 중 모니터 요원을 상주시키고 선거이후에는 정치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시받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협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국민소환권을 인정하게 하여 처벌받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총선연대에서 밝힌 낙선리스트에 해당하는 자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바람직한 후보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자에게 협정을 제안하고 수락후보와는 맑은 정치 협정을 조인한다.

사회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는 여성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의 시작이다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탐골 공원에서 청년진보당(대표=최현) 주최로 호주제 철폐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 날 본 집회에 앞서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호주제를 철폐하여, 평등가족 실현하자”는 구호와 함께 △‘호주제’로 삼행시 짓기, △여성 억압을 나타내는 간략한 퍼포먼스 등 여러 행사가 열렸다. 이 집회는 청년진보당의 이정수 부대표의 대회사로 시작으로 여러 단체의 대표자들의 연이은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전경들의 폭력진압으로 이 식은 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현 정부는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근로자 재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합법적인 집회를 무력 탄압하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더욱이 이 집회를 지켜보던 할아버지들이 전경과 함께 집회 진입을 도와 호주제의 폐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여성운동의 현상황

세계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서도 아직도 남성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1908년 3월 8일 뉴욕 여성들의 가두시위에서 유래한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달 핀란드에서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뽑히는 등 최근 날로 커져 가는 여성 파워를 볼 때, 새 세기를 맞는 지금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부 신설이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등 몇몇 제도의 도입, 해고 여성 근로자 재고용 촉진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여권 신장에 도움을 주려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임금체불,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발족,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여권회복의 앞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탐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호주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실현돼야

지난 8일 탐골 공원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집회는 많은 기성세대들의 손가락질과 질타 속에서 거행되었다.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사상에 물든 어은 기성세대들이 볼 때 호주제의 폐지는 가부장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녀 왔던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주제는 가부장제를 옹호하며, 가부

장제는 남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나 어머니, 누나를 짓고 호주가 되는 호주제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이며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인습인 것이다.

게다가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져온 일제시대의 잔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우리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인 효친사상이나 경로사상마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과제일 뿐이다.

박지영 기자  
starfeast@hanmail.net

탈수습기

# 동악을 누비는 들풀같은 이들이 되라!

## 생명력있는 기자로 거듭나는 길에



“포기하려는 갈등보다 도전에서 오는 갈등이 더 멋있다”  
 모든 출입처를 들고 신문사로 내려올 때면, 항상 이 문구가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어진다. ‘이걸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하는 등등. 모든 일에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취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렇게 수습기간을 보냈다. 순간 순간 큰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과정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는 ‘정기자’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면 글을 잘 쓰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글을 잘 쓰는 기자보다는 바른 글을 쓸 줄 아는 기자가 되고 싶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글을 쓰고 싶다.  
 잠시 뒤돌아보면 지난 수습기간 동안, 신문사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자신을 위한 투자에 소홀했던 나를 발견한다. 그 전처럼 오고가는 전철 안에서 책을 펼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잡이 든다. 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하던 평상시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활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연 이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른 글과 생명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열심히 발로 뛰는 부지런한 기자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동악의 곳곳을 누비며 작은 목소리와 작은 몸짓도 놓치지 않는 기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며 기사 속의 내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정기자로서, 내가 서있어야 할 위치에 굳건히 바로 설 것을 많은 독자들 앞에 약속한다.

김은선 기자

## 경험이 녹아난 글로 감동 주고파



해마다 각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연기대상’을 보면 연기자에게 ‘신인상’을 수여한다. 신인상은 어떤 연기자들에게나 평생에 한 번 밖에 기회가 오지 않아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상이다. 지금 이렇게 ‘탈수습기’를 쓰는 것도 아마 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라는 생각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물론 후회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배우며, 내 자신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은 항상 내게 배울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  
 기자가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들어 맞았고 지난 ‘수습’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

고 배웠다. 많진 않았지만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취재를 하면서 내가 볼 수 없었던 사회의 단면들을 보게 되었다. 민중들의 소리,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다른 기자들.  
 맨 처음 취재 나갔던 집회에서 너무나도 겁을 먹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뒤로 물러서 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야말로 제3자가 되어 구경하게 된 것이다. 한 동안 ‘이런 내가 과연 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는 또 다른 사회에 뛰어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동안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느꼈던 괴리감도 어느새 사라지고 이전 그들과 함께라는 생각이 낫선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게 되었다.  
 지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던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기자’라는 자리에 서있다. 그리고 이전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바탕으로 글로써 독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라는 가방을 메려고 한다. 따뜻한 봄이 온다. 이제 글로써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정자로 심그림에 독자들에게 다가서고 싶다.

박지영 기자

## 미완에서 완성으로의 첫 걸음



여태껏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가끔은 여러 일들을 겪으며 운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지금, 신문사에 들어왔다는 것과 탈수습을 맞이까지 왔다는 사실에서 운명이란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을 해 본다.  
 신문사에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과의 일과가 시작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강시간에 책상 앞에 혼자 앉아 기사 베끼기와 씨름을 했고 친구들과 만나던 토요일 조판날은 사진 찾으러 후문을 드나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한 달을 보냈고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다.  
 “신문사에 있을 정도면 글을 아주 잘 쓰겠네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독후감 상장 받은 것이 글쓰기 경력의 전부인 나로서

는 지금 어떻게 신문사에 있는지, 또 이렇게 탈수습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신문사 동기 선배와의 관계, 책임감 그리고 신문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희열들이라고 생각한다. 힘들다고 방향할 때마다 선배들과 신문사 가족들은 격려로 다시 일으켜 주었다. 때때로 기사를 인정받을 때면 말로 표현 못할 쾌감을 느꼈고 월요일에 작게나마 실린 내 기사를 몇 번이나 읽으며 즐거워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이 있음에도 1시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살아온 듯 하다. 그리고 지금 미완성의 기간인 수습에서 완성의 시작인 정기자로 새로이 출발한다. 수습이란 기간은 3만독자가 정기자로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리고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내가 쓰는 기사들마다 힘있게 실린다. 이름만큼이나 커져버린 부담감과 함께 다시 한번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책임감과 또 다른 시작. 그 사이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기자로서 독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힘들었던 순간 만큼 값진 열매로서의 정기기자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만큼이나 좋은 글들로 3만 독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정기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독자들에게 고한다.

김현중 기자

## 일상을 깨뜨린 청량감으로 출발



오랜 시간 일상에 길들여져 그저 정제된 채 대학생들의 목표를 잃어 버렸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삶이란 무미건조한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수습기자 모집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에 지친 발걸음은 당연한 듯 동대신문사로 향하게 되었다.

투명한 물속에 한방울 떨어진 잉크처럼 신문사 생활은 빠르게 내 안으로 번져갔다. 기사 베껴 쓰기로 시작된 수습기자 생활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면접시험을 볼 때 체력만큼은 자신있다고 힘자랑을 했었는데 그것마저 자만이었다. 신문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체력이 아닌 선배와 동기간의 믿음, 격려, 결속력 등이었다.  
 신문사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읽어야 하는 방대한 자료, 시간에 쫓기는 중앙감으로 고달픈 기사마감, 짝 짜여진 일정으로 빼앗겨 버린 듯한 사생활 등은 점차 여유를 잃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판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마시는 새벽 공기의 청량함과 성취감은 탈수습까지 나를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보다 먼저 따라다니는 ‘수습’이라는 수식어를 벗어나며 나의 역할에 대한 정리를 해 본다. 아직도 취재원과의 만남이 어렵고 현장취재에서 지속적인 판단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서툰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들과 함께 읽히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단단하게 자리잡혀 감을 느낀다. 독자와 멀리 있는 신문은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그 동안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태만해왔다. ‘이럴 땐 기자가 부지런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직접 독자 속으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정기자라는 목직함 책임감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더 이상 발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작은 기사 하나라도 책임을 느끼면서 먹음직스러운 발상을 차려 독자들에게 대접하고 싶다.

김윤미 기자

## 배움의 즐거움이 원동력 되어



애벌레였다. 나뭇잎을 열심히 기어 오르는 그런 애벌레였다. 사람들은 그 애벌레를 보면서 징그럽다고 소리치른다. 하지만 그 애벌레가 정말 징그럽기만 한 것일까.  
 학교 건물 구석구석에 붙은 수습기자 모집광고를 보고 신문사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소속감

을 느끼며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안식처를 주었다.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기사쓰는 연습을 하면서 신문사 내에서의 내 몫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내 기사를 쓰던 날의 떨림은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듯하다.  
 또한 신문 만드는 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일은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취재원을 만나면서 넓어지는 대인관계와 취재를 통해 알아가는 새로운 사실들은 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사마감시간이 주는 초조함에 가슴조이며 기사를 쓰는 일은 여전히 힘겨운 일이다.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하나 하나 부딪히고 깨달아 가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수습의 옷

을 벗으려 한다.  
 내비의 아름다움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애벌레의 꿈틀거림과 번데기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정기자가 되어서도 수습기자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한다. 정기자가 되면 수습기자 때보다 두 배의 고민과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사에 대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부담감을 늘 것이다. 어쩌면 책임감과 부담감을 못견뎌 도망가고도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마다 신문에 들어오고 싶었던 간절함 마음과 독자들을 생각하려 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기사가 아니라 진정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기사를 쓰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 나의 목소리가 아닌 3만 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다. 나는 이제 나비로 날아오르기까지의 중간단계인 번데기 시절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지금 애벌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번데기의 모습으로 발을 내딛는다.

표은영 기자

제2회 네티즌 연극제

# 좋은 사람과 연극, 그 설레이는 만남이 시작된다



지는 장을 만들고 있다. 실상 다양한 직업과 연령, 지역 차 때문에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 이외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년 중 한번이라도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13일에는 연극제의 일환인 대학로 정화운동과 연극 사랑 캠페인을 시작으로 아마추어 연극인의 열정을 보여주며 연극 수용자로서 연극의 중심지인 대학로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점차 사라져가는 대학로 극장들의 위기극복에 일조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제 2회 네티즌 연극제는 나우누리 연극 동호회(go drama)의 '칠산리'를 시작으로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공연된 나우누리 동호회(go drama)의 '칠산리'는 빨갱이 소굴로 인식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칠산리를 배경으로 산속에 버려진 빨치산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10일부터 12일에는 천리안 연극 동호회 연극 마당(go theatre)의 창작 뮤지컬 '사람들은 생선과 소문을 즐긴다'가 발랄하고 경쾌한 내용과 연기로 네티즌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극제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며 연극 공연뿐 아니라 축하공연, 초청강연, 거리 캠페인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은진 기자

### 행사 일정

기간	주체	내용	비고
3월 3일(금)~5일(일)	나우누리	이강백 작 <칠산리>	
3월 7일		축하공연-무용	
3월 10일(금)~12일(일)	천리안	연극원 공동창작 <사람들은 생선과 소문을 즐긴다>	
3월 14일(화)		연극인 초청강연	
3월 16일(목)~19일(일)	넷초고	손튼 와일드 작 <우리 읍내>	
3월 21일(화)		특별 세미나	
3월 23일(목)~26일(일)	유니텔	제이 알렌 작 <연상의 여자> 원제:40케터	
3월 28일(화)		축하공연-마임	
3월 30일(목)~4월 2일(일)	하이텔	김대현 작 <미래열차>	
4월 2일(일)		폐막식	

# 나는 산뜻한 N세대가 좋다

"N세대"라는 말은 참 산뜻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참 산뜻하다. "X세대"라는 말의 어둡고 괴상한(grotesque)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그런지 세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산뜻하다. "O?"

new, next, network, nobody ... 하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들은 새롭고, 컴퓨터와 network에 몰두해 있으며, 누구라고 딱히 지칭할 수 없다. 또, 내 머리에 담장 떠오르지 않는 어떤 단어의 시작이거나 중간이라도 상관없다. 동그라미는 또 뭘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 말리에 n이 있는 그런 것인지, 떠있는 섬 위의 n인지 아쉬워한다. 어쨌든 나와는 떨어져 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체온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나의 컴퓨터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나는 보편적 상식을 그들은 특수 세대의 상식을 존중한다.

상식은 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대체되어져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변화의 시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에게 나의 상식을 얘기한다. 이것이 나의 green peace 운동이다. 내가 노란색이건, 그들이 파란색이건, 우리의 세계는 초록빛을 띠었으면 좋겠다.

"안녕, 어쨌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초록색이 아닌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초록색이 아닌 것도 아니다. 때

# 달하나 천강에

에 따라서 그렇게도 아니게도 말하자. 단, 보편적 상식 위에서 특수 세대의 상식을 얘기하자. 그리고 극단은 극단적 상황에서 서만 고려하자. 부수고 부러질 때의 뜻은 영화에서나 보고, 그리고 있고, 지금은 약간씩 유보도 하자. 도둑에게도 5%의 정당성을 인정하자고 했다.

N세대는 매력적이다. 그들의 매력은 온유하고 강제하지 않으며 전통을 배경으로 더 빛난다. 그 매력이 걸려져 전통과 섞이고 그 위에 또 다시 세대(?)의 산뜻함을 더하자. 그것이 초록빛을 더 신성하게 만드는,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고, 그러나 무리 없는 길이라고 하고 싶다.

아 참, 5% !!!



조영석  
자연대  
컴퓨터학과 교수

인터넷 영화

# '인터넷 때문에 영화관이 사라진다?'

새로운 영상산업의 물결 ... 문화매체의 확대 불러올 것



(주)오렌지씨씨에서 제작중인 인터넷 영화 '01412' (피사신경).

네트즌에 의한, 네트즌을 위한, 네트즌의 '인터넷 영화' 등장이 한국영화 산업에 열풍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영화 제작의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영화가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매체인데다 고속 인터넷이 영화를 상영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기술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영화는 영화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되지만 기존의 극영화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활용되며, 배급 절차 역시 네티즌에 의해 선별된 사이트에서 상영된다.

하지만 기존 극영화산업의 틀을 무시한 채 인터넷이라는 매체만을 부각시키려는 그릇된 접근 방법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은 영화배급보다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영화배급 채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속 접속망 확충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해적관의 불법거래나 음란영화 규제문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화의 등장으로 과거 비디오 매체의 도입이 필름영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과 같이 비디오, 필름 영화에 미칠 여파도 심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벤처 기업 (주)오렌지씨씨의 이재선 개발팀장은 "큰 화면과 작은 화면의 차이가 인터넷 영화의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만약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처럼 큰 화면에서의 동적인 그림을 기대한다면 인터넷 영화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인터넷 영화의 등장이 잠깐 동안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극영화나 비디오 매체를 위협하기는 힘들거라고 말한다.

본격적인 인터넷 영화의 개봉을 맞이하는 지금 인터넷 영화는 매체권의 한계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 관객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는 국내 인터넷의 인구확산과 영화발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신개념의 영상산업 시스템은 인터넷 영화를 통해 한층 더 새롭게 발전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교수가 권한다



김세균 교수  
불교대학 불교이동학과

뇌내혁명



이 때를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인간의 건강과 장수, 행복한 삶, 나아가 인류의 존재 목적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병을 앓는 현대인, 강력한 치료제는 사고를 바꾸는 것이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 새로운 문제 해결·창의력 발휘 능력이 생기며 긍정적·적극적인 사고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마음의 병을 쌓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이다. (하루마야 시게오 지음)

철도원

"1차 일본문화 개방이 이뤄진 지금, 2차개방에 앞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한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한 '철도원'의 이야기로 아내의 출산과 죽을 앞에서도 '철도원'이라는 책임을 다하는 일본인의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 눈은 풍경과 눈 속에서 묵묵히 연기하는 일본의 국민배우 다카구라 겐의 모습에서 감동과 일본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인생을 살면서 각 연령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20대는 성인으로 들어가는 초기단계로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립해야 한다.

20대는 인생에서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고 꿈이 많은, 왕성한 열정을 가진 시기인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잘못된 유혹이 있지만 꼭 해야 할 것도 있다. 이 책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꿈과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 매체비평

- TV 광고편

‘스니커즈’

“광고의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인가

제품의 이미지를 팔 것인가”



이야기는 스니커즈 TV 광고에서 나오는 커피이다. 스니커즈 초코바 때문에 싸우는 두 사람을 혼내는 내용으로 전혀 의도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멘트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잘 다듬어지고, 매끄러운 커피에 비해 다소 과격적인 문법을 엿볼 수 있는데, 이 광고의 이런 일탈성은 영상에서 더욱 극명하게 느껴진다. 물론 이 광고의 일탈성은 전형적인 광고 문법의 일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일탈성을 통해 실제로는 더욱 가까이 위치한 극사실주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학창시절 등하교길에서 만났던 불품 없는 골목, 그 옆으로 늘어선 회색의 담벼락.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재수 없는 날이면 그 길을 막고 선 불량배를 만나곤 했는데, 속칭 ‘뽕뜰기’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리얼 카메라 기법의 이 광고는 카메라가 사람의 시선이 되어 쫓아가는 듯 촬영한 것으로 사실감을 더해 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고가 필름으로 촬영되어지는 반면, 이 광고는 일반 방송용으로 쓰이는 ENG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반 TV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이미 익숙해진 우리들의 인식을 이용하고 있다. 모델 역시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길에서 캐스팅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적인 표현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감에 있다고 하겠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서 광고는 설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설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일 수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일상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광고는 일정 정도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공감이 제품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바퀴 달린 소비자들은 스니커즈를 어떤 초코바로 기억했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 광고의 표현은 과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좋은 광고가 지나야 하는 덕목 중에

‘강한 인상(impact)’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パクト 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상관 관계(Relevance)’이다. 상관 관계는 제품, 소비자, 시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 광고는 타겟과는 상당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지만, 제품과의 연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하어튼 그 표현의 참신성과 강한 인상으로 다른 광고와의 차별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광고의 사실적인 표현은 여전히 더욱 정교해져야, 의도된 조작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고는 여전히 팔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양웅  
금강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woong@creative.diamond.co.kr)

# 시작은 작지만 끝은 큰 울림이 되리라

## 문화계릴라 ‘독립잡지’... 명확한 주제의식과 솔직함으로 주류에 대항한다

21세기 문화의 화두는 단연코 ‘다양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양성의 한가운데 ‘인디즈’가 있다. 수많은 장르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내고 있는 ‘인디즈’는 언더 그라운드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 개체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혹자는 이들을 문화 게릴라라고도 한다. 정규군이 아니면서 소규모의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고 일정한 진지 없이 불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게릴라의 특성과 인디즈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인디즈는 게릴라처럼 음악,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며 주류에 대항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미 음악이나 영화같은 분야에서 ‘독립적인’ 조직들, 즉 인디즈는 게릴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몇몇의 인디 밴드는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하며 주류를 위협하고 있고 독립 영화들은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그리고 이제 활자 매체에도 문화 게릴라들의 습격이 머저린 것 같다. 기존의 문화 잡지들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며 신선한 발상과 거침없는 말투를 여과없이 옮겨놓은, 게다가 시각적인 효과까지 노련을 아끼지 않은 잡지들이 하나 둘씩 서점에 깔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유통 방식, 독자층, 가격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주류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주류를 능가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다.

### 한 우물만 확실히 판다!

이러한 잡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확한 주제의식이다. 그렇다고 세계평화, 통일, 사회부조리 등과 같은 거창한 주제의식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제 보면 시시할 수도 있는 주제를 집요할 정도로 파고든다. 이를테면, 주제를 ‘배’로 정해서 배에 내

포된 사전적, 사회적 의미를 모조리 파헤치는 격이다. 사람 몸에 대한 경건한 성찰과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먹는 배, 타는 배, 또 그에 관련된 삶까지 가벼운 어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진지함을 잃지도 않는 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없다

이런 묘한 줄타기가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여과 없이 활자화되는 문체 때문일지 모른다. 길거리나 친구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체로 ‘익숙하게 하기’의 과격함을 보여준다. 실컷 욕도 하고 음담패설도 거리낌없이 뱉어낸다. 하지만 상스럽거나 외설적이지 않다. 현학적이고 엄숙하게 다루기만 했던 주제들을 오히려 쉽고 편안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눈높이에서 대화하듯 써나가는 문체는 더욱이 민중적이고 솔직하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기존 잡지들의 권위를 비웃는다.

### 읽고 싶은 사람만 읽어라!

솔직하고 거리낌없는 말투는 금방 신세대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했다고 하듯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이다 읽기 싫으면 권리라’ 이렇게 말할 것만 같다. 아예 특정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주축으로 ‘1973’이란 잡지 제목을 달고 그들만의 얘기를 꾸려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독립잡지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다.

### 구테베르크와 네트워크의 교감

하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선택한 독자는 N세대들인 것 같다. 대부분의 게릴라(?) 잡지들은 서점 가판대에 만족하지 않는다. 서점가판대에 오르기도 전에 인터넷상의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정보와 의견을 쏟아낸다. 고전적인 활자매체와 네트워크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대가 N세대들이고 정보의 내용도 대학생이나 심대들을 위한 내용임을 볼 때 이러한 잡지들이 은밀하게, 서서히 기성세대들을 소외시켜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튀고 싶어 증후군

팜, 팜, 까, 나나, LUNCH BOX...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잡지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제목에 대한 설명도 이보다 더 독특할 수가 없다. 창의성과 신선함으로 뽐낼 만한 이들 게릴라 잡지는 오늘의 ‘튀고 싶다 튀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대변한다.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색다르게 표현하기를 보여줌으로써 개성과 창조적인 사고를 부추긴다. 심지어 버스 내부에 까지 가판대를 배치하는 젊은 잡지들을 대하노라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만 같다.

### 하지만 큰 울림이 되기까지...

그러나 이와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서서히 큰 울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부터 단언할 수 없다. 소규모 자본에서 출발한 영세한 잡지들이 경제논리에 희생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가(無價)지로 출몰한 잡지들이 폐간되고 혹은 유가(有價)지로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젊은 게릴라 잡지들은 “비주류의 가치를 대변하는 일자체가 보람이고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노력들이 경제적 토대가 되어 양·질적으로도 변화되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로 어려움을 견뎌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순간 반짝이 곧 사라져 버리지 않는, 마구 떠돌다가 ‘조용히 해!’ 하는 소리에 움찔하지 않는 큰 울림으로 남기 위해 늘 살아숨쉬는 생각과 패기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최은진 기자



## 인터뷰



주류잡지에 대항하는 비주류잡지로 뚜렷한 색깔을 띠고 있는 인포진(inforzine) ‘팜’의 편집인 권성우씨를 만나 ‘팜’만의 성격과 독특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 ‘팜’을 무료로 버스에서 배포하던데.

처음에는 버스에서 무인으로 일간지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가잡지로 눈을 돌렸고, 다행히 버스무인판매로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창업투자사’와 약정도 맺고, 자금도 보조받아 잡지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인포진(inforzine)이라는 말이 생소하네. ‘팜’은 정보 전달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information과 magazine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잡지의 성격을 내포한 신문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존 주류잡지의 정보능력을 무가잡지가 따라잡기는 힘들지 않나.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많은 정보를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거라면 독자들은 식상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로 뛰어서 스스로 느끼고 겪은 것을 쓰기 때문에 유가잡지의 정보능력과도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팜’만의 장점이 있다면. ‘팜’을 만드는 사람들의 개성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사람들이 만드는 잡지니까 잡지 자체도 독특한 색

깔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구요. 또 독자와 발행자가 서로 가족처럼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잡지와는 다른 점이기도 하겠구요.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존의 매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주고자 하는 잡지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표은영 기자  
bluerain@cakra.dongguk.ac.kr

## 메아리

### 대박

▲한국에 벤처 열풍이 불어 온지 오래다. 이미 신화창조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대학생, 일반직장인, 대기업인 모두 너나할 것 없이 대박을 터뜨릴 기회를 노리고, 벤처기업과 손을 맞잡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기업간의

일방이 없는 전략적 제휴 선언을 통해 투자자들이 성장가능성은 무시한채 무차별적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화 ‘반칙왕’을 보면 등장인물들은 레슬링을 하는 과정에 승리를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삼으로 내리치거나 포크로 찔러대는 잔혹한 장면이 많이 삽입돼 있다.

그러나 이 반칙은 영화의 한 장면일 뿐

이며, 실제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여름철 하루 6시간씩 운동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된 훈련을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등장인물의 희생과 열의는 영화 ‘반칙왕’의 흥행만점 효과를 얻어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가 한 국가의 체제를 뒤흔들며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가는 사례가 빈번

하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FBI는 물론 각국 정보기관들의 감도높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언젠가는 해커의 단순한 호기심은 그 꼬리가 밟힐 것이며, 위험한 모험은 결국 응징될 것이다.

▲벤처 붐이 가라앉기까지 지나간 시일이 결실을 예상한다. 전략은 물론 내용마저도 영성한 기업에 대한 부분별한 투

자는 재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님모으기 식 홍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박은 한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다. 막연한 호기심과 ‘일확천금’ 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위험한 모험심은 결국 치욕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소지가 크다.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 자아인식

학교 안에서

헤더웨이 집의 유령



봄의 파스함을 느껴보기도 전에 한여름의 오삭오삭한 공포를 느껴본다면 어떨까. 한 집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또다른 사건을 만날 수 있다. 극의 흐름에 대한 관객의 기대와 예측을 반전으로 무너뜨린다. 존머리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이다. 연극영양학부의 신입생 환영공연.

3월 16~18일 목, 금 7시 토요일 4시 7시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예술대학생회 2260-3669

신입생 환영공연



00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선배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공연이 이어진다. 3월 13일~15일까지 열리는 동아리박람회 중, 공연동아리들이 환영행사를 마련한 것. 민속극연구회 탈에서 풍물과 탈춤, 문계구름에서 노래공연, 손짓사랑회에서 수화, 극에서 연극, 아리랑에서 민중가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도 보고 마음에 드는 동아리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3월 15일 12시부터 불상앞에서.  
문의 동아리연합회 2260-3616

학교 밖에서

볼륨 꺼주세요



당신이 2000년 다시 보고 싶은 연극은 무엇인가. 92년부터 95년까지 20만명이 관람하고, 6500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2000년에 다시 보고 싶은 연극 1위로 뽑은 작품. 사랑했던 여

인을 배신한 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순수했던 예전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3일~26일 월, 수, 목 7시 30분  
금, 토 3시 7시(30분 일 3시 (화성)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문의 516-1501

새천년 만다라예술제전



칼라차크라, 음만다라, 메디슨만다라, 만주사리 만다라 등 여러 종류의 만다라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각종 만다라 뿐만 아니라 선서화, 행 위선무로 널리 알려진 범명성님의 용그림도 접할 수 있으며, 설봉성님의 인사를 전신한 도예전도 함께 치뤄진다. 고려자기와 조선 백자 등을 전시한 골동품전과 각종 풍물을 볼 수 있는 아시아 민속품물전까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전시회.

2월 10일~3월 23일 롯데대일민속박물관  
화랑에서 문의 411-4761

소나기

수강신청



△편히 강의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나누지 말고 3시간 연장으로 하자. 1시간 30분으로 나뉘지만 오히려 그게 시간낭비가 더 많고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해계 우왕시 동승학원
진짜 애머의 면모를 보려고 하고, 이애가 두미 칸 카실로 더 아쉽
너를 위한 팔복매증... (수강신청 관련 글)

55세 나이로 관광대학(아) 신입생이 된 박재우 씨에게 80세 노모가 보낸 격려의 편지

서울캠 특수강좌 부족에 따른 대책 필요

본교의 학생이라면 교양선택 중 외국어 영역에서 2강좌 이상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공대·정산대 풍물패 한소리 후배들이! 공대 공연 잘해라. -1003
△중범이영!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문과대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때마침 눈발이 걸음을 재촉하는 오후. 아직 겨울 내음이 남은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여학우의 미소가 밝기만 하다.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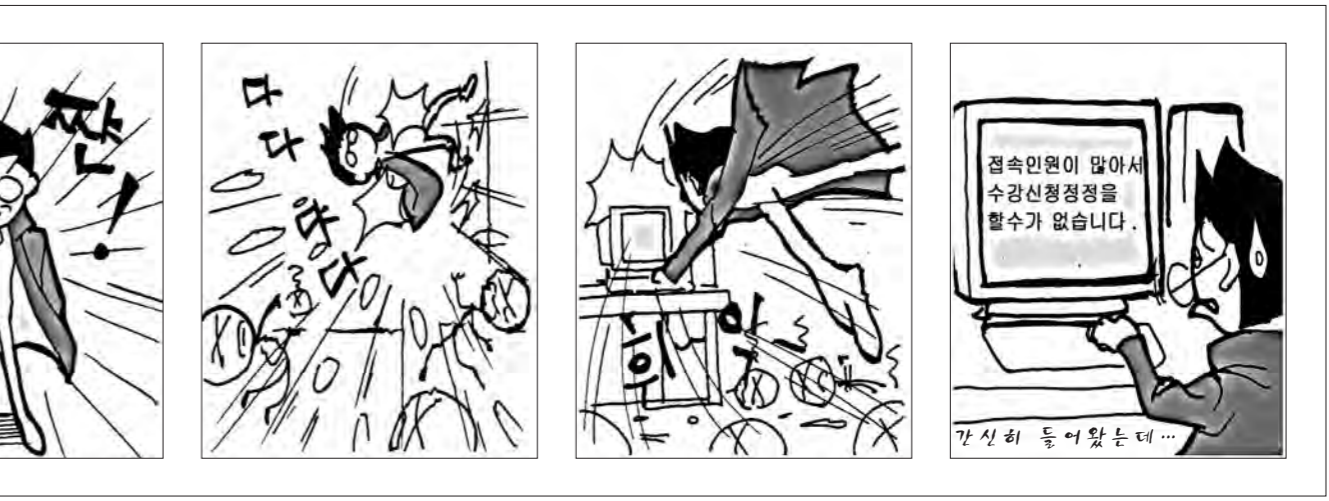
제 1289호 동대신문을 읽고

12면 증면에 따른 기사 질 향상에 힘써야... 학술면·생활면 등 편집 실수 아쉬워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의 사회이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 권위주의는 살아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와 사회를 경직시키는 군대식 형식과 사고방식들이 그것이다.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민두국밥반(1300), 오징어관동기(1500)
화: 복어구이백반(1300), 카레라이스(1300)
수: 양지탕(1300), 헬스스류음(1500)
목: 후링크아채볶음(1300), 체육류음(1500)
금: 순두부찌개(1300), 미트볼덮밥(1500)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아육국(1300) 수제비탕(1300)
화: 체육류음(1600) 해물덮밥(1800)
수: 미역국(1300) 냉이된장국(1300)
목: 김치볶음밥(1600) 스파게티(1800)
금: 속된장국(1300) 콩나물해장국(1300)
토: 불고기덮밥(1700) 카레라이스(1500)
일: 근대국(1300) 무채국(1300)